

보도해명자료 (’19. 4. 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광물공사 해외자산 매각과 관련,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
매각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음

(서울경제 4.1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광물공사 해외자산 매각과 관련,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음
- 4월 16일 서울경제 <알짜광산 ‘적폐’로 몰려 결국 외국사에 넘어가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❶ 광물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인 꼬브레파나마 사업 매각과정에서 ‘가격’ 보다 ‘매각 우선’ 방침에 따라 헐값 매각 우려가 있음
- ❷ ‘18.3월, 자원공기업이 보유한 해외자산을 모두 매각하기로 정부가 결정한바 있음
- ❸ 광물공사의 알짜 자산인 꼬브레파나마 사업이 결국 외국 기업에게 넘어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매각 및 기능조정 필요성

-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,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
 - * 부채(조원): ’09년 0.9 → ’18년 5.9, 자본(조원): ’09년 0.7 → ’18년 자본잠식
- 이에 따라, 정부는 ’18.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‘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’을 아래와 같이 보고·확정 하였습니다.

- 아 래 -

- * 광물공사·광해공단 통폐합 → 한국광업공단(가칭) 설립
- *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,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음(자산가치 하락 방지)
- * 산업부에 매각관련 심의·의결기구로 「해외자산관리위원회(가칭)」 설치
- *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, 공적 기능(광업지원, 비축,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) 유지

② 광물공사의 해외자산 매각의 기본원칙

- 향후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, 자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고,
-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.

③ 꼬브레파나마 동광 사업 관련

- 동 사업에 대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3회에 걸쳐 국내 자원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,
 - * 약 50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자산매각관련 설명회 개최(’18.11월~’19.2월)
- 향후 매각절차에 대해서도 공운위에서 확정된 기본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정근용 광물자원팀장(044-203-5259)
박이용 사무관(044-203-5256)